

## 비교 코퍼스에 기반한 불한 번역 문학의 격식성 연구\* — 구어체와 문어체 사용을 중심으로 —

김혜영 · 고여림 · 김지은 · 이영훈\*\*  
(고려대)

###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구어체와 문어체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번역문과 비번역문(non-translated text) 간의 격식성(formality)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있다. 구어체와 문어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텍스트 유형으로는 문학이 대표적이다. 본고에서는 불한 번역 문학과 국어 창작 문학을 대상으로 구어체와 문어체의 전반적인 사용 양상에서 나타나는 번역문과 비번역문의 격식성 수준을 비교하도록 한다.

번역에서 격식성의 문제를 다룬 국내 연구로는 이지연(2007)과 김순미(2010)가 있는데, 이들은 영한 번역에서 번역문이 원문보다 더 격식적임을 밝힌

---

\* 본 연구는 2009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이영훈,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erasme@korea.ac.kr

연구이다. 이지연(2007)은 영어 뉴스가 한국어 뉴스로 번역되면서 정중성과 격식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강범모(2002)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한국어 TV 뉴스가 정중성과 격식성의 수준이 높음을 보이고, 한국어 뉴스의 이러한 특성이 뉴스 번역 전략에도 반영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순미(2010)는 『호밀밭의 파수꾼』의 번역본 4종을 대상으로, 영한 번역에 나타난 비속어와 관용구, 은유 번역 결과를 분석하여 원문에 비해 번역문의 격식성이 더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외국어 텍스트를 국어 텍스트로 번역할 때 번역문이 원문보다 격식성이 더 높아진다면, 국어 텍스트 가운데 처음부터 국어로 창작된 비번역문과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 간에는 격식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진다. 비교 코퍼스(Comparable corpus)에 기반하여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을 연구한 이영훈 외(2010)에서, 불한 번역문이 국어 비번역문에 비해 대명사 ‘당신’과 존칭 조사의 빈도가 높고 구어체 조사의 빈도가 낮음을 들어 불한 번역문의 격식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번역문의 격식성을 논의한 앞선 연구들에서 격식성 판단의 근거로 삼은 기준들은 격식성의 요소들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아 번역문의 격식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문어체와 구어체의 사용 양상으로 범위를 넓혀 번역문의 격식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문학 텍스트는 비격식적인 구어체로 나타나는 대화문이 많아 격식성의 수준을 연구하기에 좋은 텍스트이므로, 기구축된 비교 코퍼스를 활용하여 불한 번역 문학과 국어 창작 문학 텍스트를 비교하여 번역문의 격식성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 2. 문어와 구어의 격식성

격식성을 논하기에 앞서, 문어와 구어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sup>1)</sup>의 정의에 따르면, 문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닌, 문장에서만 쓰는 말”이고, 구어는 “문장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 검색 사이트(<http://124.137.201.223/>) 참조.

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다. 즉,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구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언어이고, 문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지 않고 문장에서만 쓰는 유표적인 언어라 할 수 있다.

흔히 ‘문어’와 ‘구어’라는 용어 대신에 ‘글말’과 ‘입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글말을 문자 언어와 같은 말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글말은 문자로 표기한 말로서, 음성 언어에 상대하여 글자를 매개로 표기한 것을 이른다. 그렇다면 입말은 음성 언어와 같은 말일 것으로 기대되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입말을 구어와 같은 말로 정의하고 있어 용어의 구분과 정의에서 약간의 모순을 보인다.

노대규(1996: 15)는 언어를 의사 전달 매체의 차이에 의해 구어(spoken language)와 문어(written language)로 나누고, 입말과 글말을 각각 구어와 문어의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즉, 음성 기호로 이루어진 언어를 구어 또는 입말이라 칭하고, 시각적인 문자로 표기된 언어를 문어 또는 글말이라 칭하였다. 본고에서는 노대규(1996)의 정의를 따르고, 이들을 구어와 문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격식성이란 상황에 맞게 격식을 차리는 성질이나 특성을 말한다.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그 상황에 적절한 격식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김순미 2010: 127),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담화의 성격에 따라 격식성의 실현 정도에 차이가 있다. 격식성은 문어와 구어를 구분하는 주요 특성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sup>2)</sup>. 문어와 구어는 격식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말을 할 때보다 글을 쓸 때에 더 격식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더 격식을 갖추게 된다는 것, 즉 격식성이 높다는 것은 일상적이거나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표현보다, 전문적인 용어나 추상적이고 압축적이며 객관적인 표현을 더 많이 쓰며, 가급적 문법적인 문장을 사용함을 뜻한다.

그렇다고 문어가 반드시 격식성을 가져야 한다거나, 구어가 격식성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문어가 항상 격식적인 것은 아니며, 구어가 항상

2) 노대규(1996)는 격식성 외에도 문어와 구어의 여러 차이를 분석,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구어는 다양성, 즉각성, 친교성, 표현성, 포함성, 구체성, 순간성, 동태성, 모호성, 비논리성, 비격식성, 상황 의존성 등을 지니며, 문어는 단순성, 계획성, 제보성, 분리성, 추상성, 영구성, 정태성, 명시성, 논리성, 격식성, 문맥 의존성 등을 지닌다.

비격식적인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문어 및 구어 안에서도 격식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친밀한 사람들 간의 일상 대화에서는 주로 비격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 뉴스나 연설, 회의, 토론, 발표와 같은 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격식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대학교에서의 보고서와 학술 논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보고서나 공문서, 기타 학습 교재 및 전문 서적, 기사문 등과 같은 공식적인 글에서는 격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 일기, 편지와 같은 개인적인 글이나 소설, 시나리오, 희곡 등의 문학 작품 등에서는 대체로 비격식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말의 사용 대상이나 사용 범위, 사용 기회, 사용 빈도의 측면에서 보면, 구어는 격식적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비격식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고, 문어는 비격식적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격식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서, 대체로 구어는 비격식성을 띠고 문어는 격식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노대규 1996: 34-35). 요컨대, 격식성은 구어와 대비되는 문어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간주된다.

텍스트에서 격식성은 문체와 관련한 특성으로, 텍스트에 따라 격식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김순미(2010: 129)는 격식성이 높은 문체와 낮은 문체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요소로 문법, 문장 구조, 어휘를 들면서, 공적이고 심각한 사안에는 길고 복잡한 문장 구조와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며 전문적인 용어와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사적이고 긴박성,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안일수록 격식성이 떨어져 짧고 간결한 문장을 쓰고, 문법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일상적이고 친근한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므로, 일반적으로 격식이 떨어지는 문체일수록 더 구어적이고 대화체에 가깝다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격식성이 높을수록 더 문어적이고 서술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어에 쓰이는 문체를 구어체, 문어에 쓰이는 문체를 문어체라 할 때, 구어체와 문어체의 사용 여부는 텍스트의 격식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격식적인 문어체와 비격식적인 구어체의 전반적인 사용 양상을 기준으로 삼아 비번역문과 불한 번역문의 격식성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sup>3)</sup>.

3) 이지연(2007)과 김순미(2010)는 격식성을 각각 정중성(politeness), 공손성(politeness)

###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문학 장르에 속하는 국어 비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각각 30만 어절의 형태 분석 비교 코퍼스<sup>4)</sup>를 대상으로, 국어 비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간의 격식성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영훈 외(2010)는 문학 텍스트에서 불한 번역문이 국어 비번역문에 비해 대명사 ‘당신’과 존칭 조사의 빈도가 높고 구어체 조사의 빈도가 낮음을 들어 불한 번역문의 격식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기준만으로 격식성 수준을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순미(2010)와 마찬가지로, 격식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어휘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 요소만을 근거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영훈 외(2010)에서 구축하고 분석 대상으로 삼은 비교 코퍼스를 차용하여, 문어체와 구어체 어휘들의 전반적인 사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불한 번역문과 국어 비번역문의 격식성 수준을 비교하고 불한 번역문의 격식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김순미(2010)가 어휘 외에도 문법과 문장 구조를 격식성 수준을 구분하는 요소로 제시하였으나, 문법과 문장 구조의 층위에서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통사 층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문 분석 코퍼스가 필요한데, 현재 구문 분석 코퍼스 구축은 반자동화 단계이며, 그것도 수동적인 방식의 의존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비문법적인 문장의 경우 수동으로도 구문 분석이 난해하기 때문에 기구축된 코퍼스의 규모도 작을뿐더러, 그 텍스트 유형도 제한적이다<sup>5)</sup>. 이러한 까닭에 구문 분석 코퍼스를 구축하여 번역 연구의 자료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통사 층위에 대해서는 형태 분석 코퍼스 수준에서 확인이 가능한 요소들에 한해 비교하도록 한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 장르는 문학이다. 이영훈 외(2010)에서 밝힌 불한 번역문의 격식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자료를 연구 대상

과 함께 언급하였다. 정중성 혹은 공손성은 대우법과 관련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격식성에서 대우법의 논의는 제외하고, 구어체와 문어체의 논의에 국한하도록 한다.

- 4) 이영훈 외(2010)에서 구축한 코퍼스를 차용하였다. 형태 분석의 기준은 21세기 세종계획의 형태 분석 코퍼스에서 사용한 기준을 따른 것이다. 텍스트 목록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 5) 공개 자료로는 21세기 세종계획(<http://www.sejong.or.kr>)의 기초자료분과에서 구축한 80만 어절 규모의 코퍼스가 있다.

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도 있거니와, 문학이 격식성의 수준을 분석하기에 좋은 장르이기 때문이다. 2장에서 구어에 쓰이는 문체를 구어체, 문어에 쓰이는 문체를 문어체로 규정하였는데, 지시문과 대화문으로 이루어지는 소설의 경우 지시문은 대체로 문어체로 쓰이지만, 대화문은 등장인물의 대화를 옮긴 것이므로 구어체의 특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소설 속의 대화문은 문자 언어로 쓰였다는 점에서는 문어이나, 일반적인 문어와 달리 자연스러운 일상대화, 즉 구어를 문자 언어로써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구어체의 특성을 지닌다. 1인칭 시점의 소설이라면 지시문이라 하더라도 전문 서적, 학술 논문, 공문서, 기사문 등의 공식적인 글에 비해서는 비격식적인 구어체의 성격이 강하다. 즉, 문어 텍스트 가운데 논리적인 성격의 글은 그 자체가 지극히 격식적인 문어로 쓰였기 때문에 격식성에서 텍스트 간의 차이를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문학 텍스트는 구어체와 문어체가 혼용되는 글이어서 텍스트마다 격식성의 수준이 달리 나타나므로 텍스트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가 용이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영훈 외(2010)에서 차용한 총 60만 어절의 형태 분석 비교 코퍼스를 토대로, 어휘 층위와 통사 층위로 나누어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와 국어 창작 문학 텍스트에 쓰인 다양한 문어체와 구어체의 사용 빈도를 확인하고 두 텍스트 간의 격식성을 비교하도록 한다.

####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교 코퍼스는 이영훈 외(2010)의 연구 자료를 차용한 것으로, 국어 비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각각 30만 어절의 문학 텍스트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문장 수는 전자가 35,426개, 후자가 33,438개이다<sup>6)</sup>. 이영훈 외(2010)는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에 비해 대명사 ‘당신’과 존칭 조사의 빈도가 높고 구어체 조사의 빈도가 낮음을 들어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에 비해 격식적이라 하였는데, 격식성은 문어의 전형적인 특성이므로 구어체인 대화문에 비

6) 이영훈 외(2010: 166)에서는 비번역문의 문장 수를 31,525개, 불한 번역문의 문장 수를 29,673개로 제시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종지부호를 기준으로 문장을 구분하여 수정하였다.

해 문어체인 지시문의 수가 더 많다면 어휘의 빈도에서도 문어체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 더 격식적인 성격을 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sup>7)</sup>. 그래서 대화문<sup>8)</sup>의 비율을 조사해 보았다.

〈표1〉 대화문의 빈도 비교<sup>9)</sup>

	비번역문		불한 번역문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대화문 수	7,976	22.51	11,158	33.37
전체 문장 수	35,426	100.00	33,438	100.00

위 표를 보면,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에 비해 대화문의 비율이 더 높다<sup>10)</sup>. 그렇다면 대화문과 지시문의 분포로 볼 때, 이 비교 코퍼스에서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구어체의 빈도가 더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오히려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구어체의 빈도가 낮고 문어체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어휘 층위와 통사 층위로 나누어 문어체와 구어체의 빈도를 비교함으로써 비번역문과 불한 번역문의 격식성 수준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 4.1. 어휘 층위

현대에 이르러 언문일치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문어에는 구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고적이고 격식적인 어휘들이 쓰인다. 본 절에서는 문어체와 구어체

7) 존대어는 주로 구어에 나타나는 어휘적 특성으로서, 같은 구어라 하더라도 비격식적인 구어보다 격식적인 구어에서 많이 쓰이므로, 존대어가 많이 쓰이면 더 격식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8) 대화문은 수동으로 모든 문장을 확인하여, 따옴표 안에 쓰인 것뿐 아니라 따옴표 없이 쓰였더라도 대화를 옮긴 문장이라면 대화문에 포함하여 세었다.  
 9) 표에서 상대빈도는 전체 문장 수에서 대화문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10) 이 결과는 본 연구 자료에서만 유효한 것일 뿐, 코퍼스의 규모와 대표성이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준이 못되므로, 이 결과를 가지고 불한 번역 소설이 국어 창작 소설보다 대화문이 더 많이 쓰인다고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

가 구분되어 쓰이는 다양한 어휘들의 빈도를 조사하여 불한 번역문과 비번역문의 격식성 수준을 비교해 보겠다.

## 1) 명사

### (1) 자립 명사

노대규(1996: 41-42)는 구어에 쓰이는 비격식적인 자립 명사와 문어에 쓰이는 격식적인 자립 명사를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땅/토지, 책방/서점, 말/언어, 생각/사고, 사람/인간’이 그 예이다. 이 중에서 ‘사람’과 ‘인간’의 빈도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자립 명사의 빈도 비교<sup>11)</sup>

	비번역문		불한 번역문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인간	176	8.47	399	18.47
사람	1,901	91.53	1,761	81.53
합계	2,077	100.00	2,160	100.00

위 표를 보면,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에 비해 ‘인간’의 빈도가 훨씬 높다. 물론,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더 격식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나, 이들은 구어와 문어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쓰인다. 즉, ‘사람’이 구어에 주로 쓰이고 ‘인간’이 문어에 주로 쓰이는 어휘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인간’은 “마음에 달갑지 않거나 마땅치 않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그 용례를 보면 “이 인간이 글썽 또 사고를 쳤어.”와 같이 구어에서 비격식적으로 쓰이며, 이 예문에서 ‘인간’을 ‘사람’으로 바꾸면 낮잡아 보는 의미가 사라져 격식성이 더 높아진다. 이 외에도 “너 언제 사람 될래?”는 “너 언제 인간 될래?”와 격식성에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한 정도로 받아들여진다. 위 표의 비번역문에서 ‘사람’의 빈도는 ‘인간’보다 10배 가까

11) 표에서 상대빈도는 합계에서 해당 어휘의 출현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이하 동일하며, 별도 표기하지 않겠다.

이 더 높은데, 이는 ‘인간’보다 ‘사람’이 더 일반적인 어휘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만, 불한 번역문은 ‘사람’과 ‘인간’의 빈도 차가 4배 정도에 그쳐, 비번역문과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인간’의 의미 가운데 위에 제시한 의미 외에는 모두 ‘사람’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그 용법의 분포 또한 ‘사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인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격식성과 관련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2) 의존 명사**

의존 명사에서 구어체와 문어체가 구분되는 어휘로는 ‘뿐’과 ‘따름’을 들 수 있다. ‘뿐’은 구어와 문어에 모두 쓰이지만, ‘따름’은 문어에 주로 쓰이는 문어체 어휘이다. 이들의 빈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의존 명사의 빈도 비교

	비번역문		불한 번역문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따름	1	0.41	13	4.39
뿐	242	99.59	283	95.61
합계	243	100.00	296	100.00

위 표에서 문어체 어휘인 ‘따름’의 빈도가 극히 낮아서 위 결과를 유의미한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더구나, ‘따름’이 대화문에 쓰인 것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확인 결과 비번역문에 1회 쓰인 것은 지시문이었으며, 불한 번역문의 13회 가운데 3회는 대화문에 쓰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 출현횟수의 절대적인 수치가 너무 낮아 이 결과를 가지고 격식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따름’ 외에도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인 ‘회’가 문어체로 쓰이는데, 조사 결과 비번역문에는 ‘회’가 9번, 불한 번역문에는 1번 나타나지만 불한 번역문에 1회 쓰인 것은 지시문이고, 비번역문에 쓰인 것 역시 지시문이거나 ‘일회용’과 같이 ‘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용례였다.

## 2) 대명사

대명사는 2인칭과 3인칭에서 구어체와 문어체가 달리 쓰인다. 2, 3인칭 대명사의 문어체와 구어체 사용 빈도를 각각 확인해 보겠다.

### (1) 2인칭 대명사

먼저 평칭의 2인칭에서는 ‘너/네’에 대해 ‘니’가 구어체로 쓰인다. ‘니’는 ‘니가, 니한테, 니네, 니들, 니년, 니놈’과 같은 결합에서 쓰이는 구어체이다. 이들에 대응하는 문어체는 ‘네가, 네게(너에게), 너네, 너희들(너네들), 네년, 네놈’이다. ‘너’에 주격 조사가 결합하면 문어에서는 ‘네가’로 실현되지만,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에서 ‘ㄴ’과 ‘ㄹ’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면서 ‘네’를 1인칭 대명사 ‘내’와 변별하기 위해 구어에서는 ‘네’ 대신 대개 ‘니’로 발음한다. 그러나 문어에서는 ‘내’와 ‘네’가 형태상 변별되므로 ‘네’를 ‘니’로 바꾸어 쓰지 않지만, 문어라 하더라도 대화문과 같이 구어체를 쓰는 경우에는 ‘네’ 대신 현실 발음을 따라 ‘니’를 쓰는 경우가 많다. 2인칭 평칭 대명사 ‘너/네/니’의 빈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4〉 2인칭 평칭 대명사의 빈도 비교

		비번역문		불한 번역문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평칭	너	630	76.83	437	81.08
	네	109	13.29	102	18.92
	니	81	9.88	0	0
	합계	820	100.00	539	100.00

위 표에서는 구어체 대명사인 ‘니’의 빈도 차에 의미가 있다. 비번역문에서는 ‘니’가 평칭 2인칭 대명사 가운데 10% 가량 쓰였으나, 불한 번역문에서는 ‘니’가 한 번도 출현하지 않고, ‘너/네’만 쓰였다. 즉, 불한 번역문은 대화문에도 구어체를 사용하지 않고 문어체를 사용함으로써 2인칭 평칭 대명사의 쓰임에서 강한 격식성을 보인다.

(2) 3인칭

3인칭 대명사에는 문어체에 쓰이는 ‘그’와 ‘그녀’가 있다. 이들은 구어에서 각각 ‘그 사람’, ‘그 여자’와 같이 관형사 ‘그’에 일반명사가 결합한 형태로 쓰인다. ‘그’는 인물 대명사로도 쓰이지만 사물 대명사로도 쓰이는데, 사물을 지칭하는 ‘그’에 대응하는 구어체 대명사는 ‘그것’이다. 형태 분석 코퍼스에서는 이러한 의미 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그’와 ‘그 사람’, ‘그것’의 빈도를 함께 비교하도록 한다.

〈표6〉 3인칭 대명사의 빈도 비교

		비번역문		불한 번역문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문어	그	2,230	30.03	5,274	49.94
	그들	471	6.34	1,199	11.35
	그녀	3,388	45.63	2,676	25.34
	합계	6,089	82.00	9,149	86.63
구어	그것	1,061	14.29	1,051	9.95
	그 사람	106	1.43	75	0.71
	그 여자	105	1.41	251	2.38
	애	22	0.30	33	0.31
	개	31	0.42	0	0
	재	11	0.15	2	0.02
	합계	1,336	18.00	1,412	13.37
합계		7,425	100.00	10,561	100.00

‘그 사람’과 ‘그 여자’는 대명사가 아니지만 ‘그’, ‘그녀’와의 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위 표에 제시하였다.

문어체 대명사는 비번역문보다 불한 번역문에 더 많이 나타났다. 그중 ‘그’와 ‘그들’은 불한 번역문의 출현횟수가 비번역문의 출현횟수보다 2배 이상 많다. 사물 대명사 ‘그’에 대응하는 구어체로는 ‘그것’이 많이 쓰이고, 인물 대명사 ‘그’에 대응하는 구어체로는 ‘그 사람’이 많이 쓰이는데, ‘그것’과 ‘그 사람’의 출현횟수는 불한 번역문과 비번역문 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에서 불한 번

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사물 대명사의 용법이 많이 쓰인 것인지, 인물 대명사의 용법이 많이 쓰인 것인지, 아니면 둘 다 많이 쓰인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사물 대명사보다 인물 대명사에 주로 쓰이는 복수형 ‘그들’이 비번역문보다 불한 번역문에 2배 이상 많이 나타난 점을 미루어, 인물 대명사 ‘그’ 역시 불한 번역문에서 더 많이 쓰였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와 달리, ‘그녀’는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더 적게 쓰였다<sup>12)</sup>. <표 1>에서 보았듯이 본고에서 연구 자료로 삼은 비교 코퍼스에서는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지시문의 비율이 낮고 대화문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문어체인 ‘그녀’가 불한 번역문에 더 적게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대화문에 나타난 빈도를 확인해 보았다. ‘그녀’가 대화문에 쓰인 횟수는 비번역문이 단 6회인 데 반해, 불한 번역문은 171회로 조사되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소설에서도 지시문은 문어체의 성격을 띠지만 대화문은 구어체의 특성이 강한데, 불한 번역문은 구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그녀’가 대화문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므로, 문어체 3인칭 대명사 ‘그녀’의 사용과 관련하여 불한 번역문은 비번역문보다 격식성이 더 강하다 하겠다.

3인칭 대명사에는 구어에 쓰이는 ‘애, 개, 재’가 있다. 이들은 지시 인물이 화자와 또래이거나 화자보다 더 어릴 때 사용되며, 친근함이나 낮춤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위 표를 보면, 불한 번역문에는 ‘개’와 ‘재’가 거의 쓰이지 않았다. 불한 번역문과 비번역문 모두 ‘애, 개, 재’의 출현횟수가 워낙 낮은데다, 이들은 대우법과 관련한 표현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분석되지 않은 이상, 이 결과를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3) 부사

#### (1) 접속 부사

역접 관계와 인과 관계의 접속 부사에는 구어에 거의 쓰이지 않고 문어에만 쓰이는 접속 부사가 있다. 다음은 역접 관계 접속 부사의 빈도를 비교한 표이다.

12) 김혜영(2009: 38-40)에 따르면, 영한 번역문도 비번역문보다 ‘그녀’의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7〉 역접 관계 접속 부사의 빈도 비교

	비번역문		불한 번역문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그러나	570	61.62	654	48.37
그렇지만	49	5.30	187	13.83
하지만	306	33.08	511	37.80
합계	925	100.00	1,352	100.00

‘그렇지만, 하지만’은 구어 및 문어에 두루 쓰이지만, ‘그러나’는 문어에 쓰인다. 위 표에서 세 형태 모두 불한 번역문의 출현횟수가 더 많은데, 상대빈도를 비교해 보면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문어체 ‘그러나’의 상대빈도가 더 낮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지시문의 비율이 더 낮으므로, 문어체 어휘가 불한 번역문에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가 대화문에 나타난 횟수를 조사한 결과, 비번역문은 2회, 불한 번역문은 72회로, 불한 번역문에서 ‘그러나’가 대화문에 많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번역문의 경우 ‘그러나’의 출현횟수 570회 가운데 대화문에 쓰인 것은 단 2회에 그쳐, ‘그러나’가 문어체 접속 부사임을 증명해 준다. 그런데 불한 번역문에서는 ‘그러나’의 전체 출현횟수 654회 가운데 대화문에 쓰인 것이 72회에 이르러, ‘그러나’가 대화문에 쓰인 비율이 11%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불한 번역문이 더 격식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래 표에서는 인과 관계 접속 부사의 빈도를 비교해 보았다.

〈표8〉 인과 관계 접속 부사의 빈도 비교

	비번역문		불한 번역문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그러므로	18	4.18	13	2.50
따라서	24	5.57	21	4.05
그리하여	9	2.09	40	7.71
그래서	271	62.88	338	65.13
그러니(까)	109	25.29	107	20.62
합계	431	100.00	519	100.00

위 표에 제시한 인과 관계 접속 부사에서 ‘그래서’와 ‘그러니(까)’는 구어 및 문어에 두루 쓰이지만, ‘그러므로, 따라서, 그리하여’ 세 형태는 구어에서 쓰지 않는 문어체이다. 이들은 특히 논리적인 글에 주로 쓰인다. 본고에서 연구 자료로 삼은 코퍼스는 문학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와 ‘그러니(까)’에 비해 이 세 형태의 빈도가 매우 낮고 비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간에 차이도 작아서 위 표의 결과로 격식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화문에 ‘그러므로, 따라서, 그리하여’가 나타난 횟수를 조사한 결과, 비번역문은 ‘그리하여’가 대화문에 쓰인 예가 없었고 ‘그러므로’와 ‘따라서’가 각각 1회씩 나타나 이들이 논리적인 글에 쓰이는 문어체라는 사실을 반영하였지만, 불한 번역문은 ‘그리하여’가 10회, ‘그러므로’가 5회, ‘따라서’가 8회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번역문보다 대화문에 쓰인 예가 많았다. 이 세 형태가 불한 번역문의 대화문에 쓰인 총 횟수는 23회인데, 이는 불한 번역문 전체에 쓰인 횟수 74회의 31%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 역시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격식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 (2) 일반 부사

일반 부사 가운데 비교의 정도를 나타내는 일련의 정도 부사들은 문어체와 구어체가 달리 쓰인다. 그중 ‘극히, 몹시, 매우’는 주로 문어에 많이 쓰이는 형태이다. 구어에서는 ‘되게, 엄청’ 등이 여기에 대응되는 형태로 쓰인다. 문어와 구어에 가장 폭넓게 쓰이는 형태로는 ‘아주’와 ‘너무’가 있다. 이들의 빈도를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표9〉 비교급 정도 부사의 빈도 비교

	비번역문		불한 번역문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극히	2	0.32	6	0.63
몹시	70	11.02	94	9.88
매우	43	6.77	121	12.72
아주	227	35.75	434	45.64
너무	289	45.51	295	31.02
되게	0	0	0	0
엄청	4	0.63	1	0.11
합계	635	100.00	951	100.00

문어체인 ‘극히, 몹시, 매우’에서 ‘극히’는 그 출현횟수가 너무 적어 비교의 의미가 없고, ‘몹시’는 두 텍스트가 비슷하며, ‘매우’가 불한 번역문에 특히 많이 쓰여 눈길을 끈다. ‘매우’의 출현횟수는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3배가량 많고, 상대빈도는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2배가량 높다. 이들이 대화문에 쓰인 횟수를 확인해 보면, ‘극히’는 두 텍스트 모두 대화문에 쓰인 예가 없고, ‘몹시’는 비번역문이 4회, 불한 번역문이 35회이며, ‘매우’는 비번역문이 1회, 불한 번역문이 29회이다. 즉, 비번역문에서는 이들 형태가 대화문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이들이 문어체 부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불한 번역문은 상대적으로 이들 문어체 부사가 대화문에 쓰인 예가 많다. ‘몹시’와 ‘매우’가 불한 번역문의 대화문에 쓰인 횟수는 총 64회인데, 이는 불한 번역문 전체에 쓰인 횟수 215회의 30%에 달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문어체 정도 부사의 빈도 역시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더 격식적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아주’와 ‘너무’의 빈도이다. 이들은 문어와 구어에 두루 쓰이는 형태인데, 이 둘의 빈도를 비교해 보면, 비번역문은 ‘너무’가 1위, ‘아주’가 2위이고, 불한 번역문은 ‘아주’가 1위, ‘너무’가 2위이다. 상대빈도도 비번역문의 ‘너무’와 불한 번역문의 ‘아주’가 45%로 비슷하고, 비번역문의 ‘아주’와 불한 번역문의 ‘너무’가 각각 35%와 31%로 비슷하다. 이 두 형태는 비교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가운데 그 쓰임이 가장 활발한 것이다. ‘너무’는 본래 ‘한계를 넘어 지나침’을 뜻하는 말로 ‘너무 위험하다’와 같이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최근에는 구어에서 ‘너무 좋아’와 같은 긍정적인 문맥에서도 활발히 쓰여 그 용법이 확대되고 있으나, 보수적이고 격식적인 문어에서는 구어보다 아직 그 쓰임이 제한적이다. ‘너무’의 빈도와 관련한 비번역문과 불한 번역문의 통계 결과는 구어에서의 이러한 용법 확대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4) 조사

이영훈 외(2010: 182)는 조사 가운데 여격 조사, 공동격 조사, 접속 조사가 문어체에 대해 별도로 구어체 형태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구어체의 쓰임이 더 적고 문어체의 쓰임이 더 많음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이 외에도 몇 가지 조사를 추가하여 문어체와 구어체의 쓰임을 비교하도

록 한다.

### (1) 여격 조사

이영훈 외(2010: 182)는 형태가 같은 공동격 조사와 접속 조사에서 문어체인 ‘-와/과’와 구어체인 ‘-하고’, ‘-랑’을 비교하였고, 여격 조사에서는 문어체 ‘-에게’와 구어체 ‘-한테’를 비교하였다. 그런데 구어체 여격 조사로는 ‘-한테’ 외에도 ‘-더러’와 ‘-보고’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형태까지 포함하여 여격 조사의 빈도를 비교해 보았다.

〈표10〉 여격 조사의 빈도 비교

	비번역문		불한 번역문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에게	1,742	86.88	2,434	92.69
-한테	230	11.47	176	6.70
-더러	9	0.45	13	0.50
-보고	24	1.20	3	0.11
합계	2,005	100.00	2,626	100.00

‘-에게’와 ‘-한테’의 빈도만 비교한 이영훈 외(2010: 18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불한 번역문은 비번역문에 비해 문어체의 비율이 높다. 특히, 불한 번역문은 비번역문에 비해 구어체 ‘-한테’와 더불어 ‘-보고’ 역시 적게 쓰였다.

### (2) 시원격 조사

여격 조사 ‘-에게’와 ‘-한테’는 그 뒤에 ‘-서’가 결합하여 각각 문어체와 구어체의 시원격 조사로 쓰인다. 이들은 출발점이 사람일 때 쓰는 시원격 조사이다. 인물과 장소에 두루 쓰이는 문어체 시원격 조사로는 ‘-(으)로부터’가 있다. 아래 표에 ‘-(으)로부터’가 사람에 결합한 예와 ‘-에게서’, ‘-한테서’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표12〉 사람을 출발점으로 하는 시원격 조사의 빈도 비교

	비번역문		불한 번역문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에게서	83	55.33	113	67.26
-(으)로부터	50	33.33	37	22.02
-한테서	17	11.33	18	10.71
합계	150	100.00	168	100.00

‘-에게서’는 출현횟수와 상대빈도 모두 비번역문보다 불한 번역문이 높지만 ‘-(으)로부터’는 비번역문보다 불한 번역문이 더 낮아서 이 둘을 합한 문어체의 비율은 비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불한 번역문에서 그 빈도가 낮게 나타난 ‘-(으)로부터’가 대화문에 쓰인 횟수를 확인한 결과, 비번역문은 5회인 데 반해, 불한 번역문은 15회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람을 출발점으로 하는 시원격 조사 역시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문어체의 사용 비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축약형**

앞에서 언급한 접속 조사, 공동격 조사, 여격 조사, 시원격 조사들은 구어체 어휘에 대해 문어체 어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외에도 목적격 조사 ‘-을/를’과 주제 보조사 ‘-은/는’은 구어에서 종종 축약형이 쓰여 문어체와 구어체가 구분된다. 예를 들어 ‘나를’에 대해 ‘날’, ‘나는’에 대해 ‘난’이 각각 축약형으로서 구어에 많이 쓰이는데, 문어에서는 축약형보다 원형을 선호한다. 다음은 목적격 조사와 주제 보조사에 대해 원형과 축약형의 빈도를 비교한 표이다.

〈표13〉 조사 축약형의 빈도 비교

		비번역문		불한 번역문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목적격 조사	-을/를	24,620	97.32	25,834	98.08
	-르	678	2.68	507	1.92
	합계	25,298	100.00	26,341	100.00
주제 보조사	-은/는	19,743	93.68	21,582	93.55
	-ㄴ	1,332	6.32	1,487	6.45
	합계	21,075	100.00	23,069	100.00

위 표를 보면, 목적격 조사와 주제 보조사 모두 상대빈도에서 비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간에 차이가 거의 없어서 격식성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조사와의 결합에서 축약형이 많이 나타나는 의존명사 ‘것’의 결합형들을 비교해 보았다.

〈표14〉 의존명사 ‘것’의 조사 결합형 빈도 비교

		비번역문		불한 번역문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목적격 조사	것을	531	63.67	927	85.67
	걸	303	36.33	155	14.33
	합계	834	100.00	1,082	100.00
주제 보조사	것은	727	75.03	477	80.44
	건	242	24.97	116	19.56
	합계	969	100.00	593	100.00

위 표를 통해, 의존명사 ‘것’과 조사와의 결합에서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축약형의 빈도가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에 비해 격식적인 문어체가 더 많이 쓰임을 나타내는 것이다<sup>13)</sup>.

#### 4.2. 통사 층위

노대규(1996)는 국어의 구어와 문어의 통어론적 특성이 어순, 조사의 생략, 문장 성분의 생략, 통어적 적격성, 문장의 구조의 측면에서 달리 나타남을 보였다. 본 절에서는 이들 중 형태 분석 코퍼스 수준에서 확인이 가능한 요소들에 대해서 문어체와 구어체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여 비번역문과 불한 번역문의 격식성 수준을 비교해 보겠다.

13) ‘것’은 목적격 조사 및 주제 보조사 외에 주격 조사와의 결합에서도 축약형이 존재한다. 즉, ‘것이’에 대해 구어에서는 그 축약형인 ‘게’가 많이 쓰이며, 문어에서는 원형인 ‘것이’가 더 선호된다. 안타깝게도 본고에서 연구 자료로 삼은 코퍼스에서는 ‘게’의 원형을 복원하여 ‘것이’와 동일하게 ‘것/NNB + 이/JKS’로 형태 분석이 되어 있어 ‘것이’와 ‘게’의 빈도를 나누어 확인할 수가 없었다.

### 1) 조사의 생략

조사 가운데 격조사와 보조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일부는 구어에서 발화 상황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문어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드물다(노대규 1996: 153). 따라서 대화문에 구어체 문장이 많이 포함되었다면 격조사와 보조사의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 연구 자료로 삼은 비교 코퍼스에서는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대화문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비번역문보다 조사의 비율이 낮을 것이라 기대된다<sup>14)</sup>.

〈표15〉 조사의 빈도 비교<sup>15)</sup>

	비번역문		불한 번역문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격조사	97,254	32.21	98,249	32.54
보조사	31,075	10.29	31,505	10.43
전체 어절 수	301,893		301,937	

위 표를 보면, 기대와 달리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조사가 더 많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차이가 미미하여 유의미한 결과라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 2) 문장 구조의 장단

#### (1) 문장 길이

문어는 구어에 비해 복문의 쓰임이 많아 문장 길이가 긴 편이다. 복문은 접속과 내포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문장의 구조는 형태 분석 코퍼스에서 확인하

- 14) 물론, 비번역문과 번역문 각각 조사가 생략되지 않은 경우와 생략된 경우의 비율을 조사하여 비교하는 것이 조사의 생략과 관련한 격식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겠지만,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의 비율을 비교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 15) 표에서 상대빈도는 전체 어절 수에서 해당 조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조사가 일반적으로 체언에 결합하나, 체언 이외의 다른 품사와 성분들에도 자유롭게 결합하기 때문에 전체 어절 수 대비 조사의 비율을 상대빈도에 제시하였다.

기 어렵다. 다만, 문장 구조가 복잡할수록 문장 길이가 길어지므로 여기서는 평균 문장 길이를 계산하여 비번역문과 불한 번역문의 격식성을 비교하도록 한다.

〈표16〉 문장 길이 비교

	비번역문	불한 번역문
문장 수	35,426	33,438
전체 어절 수	301,893	301,937
문장 당 평균 어절 수	8.52	9.03

문장의 길이를 문장이 포함하는 어절 수로 측정해 보면, 위 표에서 보듯이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문장의 평균 길이가 더 길다. 본고의 비교 코퍼스에서는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구어체로 쓰이는 대화문의 비율이 더 높아서, 평균 문장 길이가 비번역문보다 더 짧아져야 하지만, 오히려 더 길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위 표에 제시한 문장 길이는 문장 구조와 관련하여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더 격식적이라는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텍스트 유형에서는 번역문이 문장 길이의 단순화(simplification)<sup>16)</sup>를 보이지 않는다는 일련의 연구들(라비오사 2002, 김혜영 2009, 이영훈 외 2010 등)이 있었다. 다른 텍스트 유형과 달리 문학 텍스트 유형의 번역문에 문장 길이의 단순화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본고에서는 번역문의 격식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가 국어 창작 텍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어체가 많이 사용되어 더 격식적임을 보았다. 문학 텍스트 유형에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문장 길이가 길게 나타나는 것 역시 번역문의 이러한 문어적 격식성과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부정법

통사적으로 장단의 구분을 가지는 문법 범주로는 부정법, 피동법, 사동법이 있다. 구어에서는 발화의 경제성으로 단형이 주로 쓰이는 반면 문어에서는 장형이 선호되므로, 이들 범주의 장·단형 비율을 비교한다면 불한 번역문과 비번역문 둘 중 어느 것이 더 문어적 성격이 강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6) 단순화는 번역 보편소(translation universals) 후보 가운데 하나이다. 단순화를 비롯한 번역 보편소에 관한 논의는 이영훈 외(2010)를 참조하기 바란다.

부정법에서 단형은 부정 부사로 실현되며, 장형은 용언에 보조 용언이 결합하여 실현된다. 피동법과 사동법의 단형은 동사에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실현되며, 장형은 동사에 보조 용언이 결합하여 실현되는데, 본고의 형태 분석 코퍼스에서는 피동과 사동 파생 접미사가 따로 형태 분석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형과 단형의 비율을 비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정법에 대해서만 장형과 단형의 비율을 제시하도록 한다.

〈표17〉 부정법 장·단형의 빈도 비교<sup>17)</sup>

		비번역문		불한 번역문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의지	안/아니	838	20.12	305	10.04
	-지 않다	3,326	79.88	2,732	89.96
	합계	4,164	100.00	3,037	100.00
능력	못	299	29.99	205	22.80
	-지 못하다	698	70.01	694	77.20
	합계	997	100.00	899	100.00

위 표에서 불한 번역문은 비번역문에 비해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 둘 다 부정 부사로 실현되는 단형의 비율이 낮고, 본용언에 보조 용언이 결합하여 실현되는 장형의 비율이 높다. 이 역시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문어적 격식성이 두드러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 5. 결론

어휘 층위와 통사 층위로 나누어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와 국어 창작 문학 텍스트의 구어체 및 문어체의 사용 양상을 비교한 결과,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격식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격식성은 구어와 대비되는 문어의 전형적인 특성인데, 본고에서 연구 자료로 삼은 비교 코퍼스에서는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대화문의 비율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비번역문에 비

17) 표에서 출현횟수는 이영훈 외(2010: 176)의 통계를 가져온 것이다.

해 문어체의 빈도가 오히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어휘 층위에서는 2인칭과 3인칭 대명사, 비교급의 정도 부사, 여격·공동격·접속 조사에서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지며, 통사 층위에서는 문장 길이와 부정법의 장·단형에서 두드러졌다. 비번역문보다 불한 번역문의 빈도가 더 낮거나 비슷하게 나타난 역접·인과 접속 부사 및 시원격 조사의 문어체 어휘들도 그것이 대화문에 사용된 횟수는 불한 번역문이 더 많아, 불한 번역문은 구어체로 표현되는 대화문이 비번역문의 대화문에 비해 더 문어적인 성격을 띠었다.

비번역문보다 번역문이 더 문어적 격식성이 강한 이유는, 번역자 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체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문어에서도 주로 논리적인 글에 쓰이는 접속 부사 ‘그러나, 그러므로, 따라서, 그리하여’ 및 구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문어체 어휘 ‘그녀, 몹시, 매우’ 등이 불한 번역문의 대화문에 많이 등장하는 사실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는 국어의 규범과 담화 관습을 거스른 것이므로 격식성을 높이려는 번역자의 의도라기보다 구어체와 문어체의 문체적 특성에 대한 고려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어적 격식성을 고찰하면서 어순이나 성분의 생략, 문법적 적격성 등의 통사 층위의 요소들을 보다 다양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들은 구문 분석 코퍼스에서 그 통계 결과가 확인 가능한 요소들이므로 구문 분석 코퍼스 구축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하였다. 한두 작품에 대해서라면 구문 분석 코퍼스를 구축할 필요 없이, 문장 성분이 생략된 문장의 개수나 어순 재배치가 일어난 문장의 개수, 적법하지 않은 문장의 개수 등을 수동으로 세는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비교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의 대표성이 문제되어 대규모의 코퍼스에 비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통사적 측면에서 볼 때, 구어는 문어에 비해 문장 성분의 생략이 잦고 어순이 자유로우며 문법적으로 적법하지 못한 문장이 많이 쓰인다는 특징을 갖는다. 소설 속의 대화문은 구어체의 특성이 강한 문어이지, 구어, 즉 음성 언어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통사 층위의 문장 표현이 실제 구어만큼 자유롭게 쓰이지는 못하며, 특히 문법성에서만만큼은 적법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

한 구어에서는 시공간이라는 담화 맥락이 존재하여, 발화되지 않아도 화·청자간에 공유되는 시공간적 상황 정보가 대화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설 속의 대화문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러한 정보들이 모두 문자화되어 대화 속에 포함되므로 소설의 대화문은 성분의 생략도 구어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글로 쓰인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통사 층위의 격식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문어체와 관련한 통사 층위의 격식성에 대해서는 문학 중에서도 드라마나 영화의 더빙 대사와 같이 발화된 담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범모 (2002)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혜영 (2009) 『국어 번역 글쓰기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 · 이영훈 · 교여림 · 김태준 · 이은정 · 조혜란 · 최현아 (2010) 「비교코퍼스에 기반한 불한번역 문학텍스트의 언어적 특성 연구-단순화와 어휘적 특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1): 161-190.
- 김순미 (2010) 「문학 번역에서의 격식성(formality)의 변화」, 『번역학연구』 11(1): 127-159.
- 노대규 (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서울: 국학자료원.
- 이지연 (2007) 「방송 뉴스 번역의 특성: 격식성과 정중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243-282.
- 전성기 옮김 (2003) 『불어와 영어의 비교문체론: 번역방법론』,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J.P. Vinay · J. Darbelnet (1958) *Stylistique compare du francais et de l'anglais*, didier.)
- Biber, Douglas (1986) 'Spoken and Written Textual Dimension in English: Resolving The Contradictory Findings', *Language* 62(2): 384-414.
- Laviosa, Sara (2002)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ory, Findings, Applications*, Amsterdam & New York: Rodopi.
- Tannen, Deborah (ed.) (1982) *Spoken and Written Language*, Norwood: Ablex.

부록: 분석 대상 텍스트 목록<sup>18)</sup>

저자	작품명	번역자	연도	출판사
그랑빌	인터넷에 들어간 대머리 원숭이	햇살과 나무꾼	1996	실천문학사
네르발	옥따비	이준섭	2007	아르테
단프랑크	이별	김용권	1993	해냄
로맹가리	벽	김화영	1996	현대문학
로맹가리	연	이수열	1993	홍원
로맹가리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김남주	1994	현대문학
로제 그르니에	약간 시들은 금발의 여자	김화영	1996	현대문학
로제 그르니에	북경의 남쪽에서	김화영	1996	현대문학
로제 그르니에	카리아티드	김화영	1996	현대문학
뤽베송	그랑부르	이미정	1993	태일
르 클레지오	매혹	김화영	1996	현대문학
르 클레지오	시간은 지나가지 않는다	김화영	1996	현대문학
마르그라트뒤라스	연인의 약속	명희진	1993	칭맥
마르셀에메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	이세욱	2002	문학동네
메리메	마테오 팔코네	정장진	2007	두레
모파상	노끈	김경미	2008	책만드는세상
모파상	달빛	이형식	2002	정음
모파상	두 친구	이봉지	2002	문학과지성사
모파상	매종 텔리에	정성국	1992	홍신문화사
모파상	목걸이	김경미	2008	책만드는집
모파상	미뉴에트	윤학로	1991	동아
모파상	미쓰 헤리엇	이형식	2002	정음
모파상	미친 여자	윤학로	1991	동아
모파상	보석	최복현	2001	글읽는세상
모파상	보호자	방곤	1999	서문
모파상	산장	한용택	2007	우물이있는집
모파상	시몽의 아빠	이봉지	2002	문학과지성사
모파상	아버지	이정립	2007	범우사
모파상	올리브숲	이형식	2002	정음
모파상	의자 고치는 여자	배기열	1998	경희대학교출판국
모파상	쥘르 삼촌	김동현, 김사행	2006	문예
모파상	첫눈	이정립	1992	범우
모파상	포로	윤학로	1999	동아
모파상	후회	최내경	2007	대교베텔스만

미셸 투르니에	소녀와 죽음	김화영	1996	현대문학
미셸 투르니에	로빈슨 크루소의 말로	김화영	1996	현대문학
베르코르	바다의 침묵	배기열	1998	경희대학교출판국
보브와르	아름다운 영상	윤태빈	1991	문조사
사르트르	벽	김희영	2005	문학과지성사
생텍쥐페리	어미니에게 사랑을	김진옥	1992	서연
샤토브리앙	르네	신광균	2003	새미
세르잔느폴롱	앙젤리크의 왕(상)	김소영	1993	여울
알베르카뫼	손님	김화영	1994	책세상
알베르카뫼	적지와 왕국	김화영	1994	책세상
알베르카뫼, 장그르니에	편지	김용환	1991	예하
알퐁스 도데	꼬마 스파이	김명숙	2000	좋은생각
알퐁스 도데	나룻배	임해진	2000	청목
알퐁스 도데	노부부	권지현	2003	주변인의길
알퐁스 도데	당구	김사행	2006	문예
알퐁스 도데	두 주막집	최내경	2003	대교베텔스만
알퐁스 도데	마지막수업	김명숙	2000	좋은생각
알퐁스 도데	별	이원희	2004	소담
알퐁스 도데	빅시우의 손기방	김사행, 이춘복	2006	문예
알퐁스 도데	산문으로 쓴 환상시	최복현	2008	인디북
알퐁스 도데	상기네르의 등대	정봉구	2002	범우사
알퐁스 도데	새 집을 마련하다	김수영	1993	이가
알퐁스 도데	세미앙트 호의 최후	권지현	2003	주변인의길
알퐁스 도데	스갱씨의 암산양	배기열	1998	경희대학교출판국
알퐁스 도데	시인 미스트랄	박해님	1996	맑은소리
알퐁스 도데	아를르의 여인	최복현	2001	글읽는세상
알퐁스 도데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	최애리	2004	현대문학
앙드레 도텔	인생의 어떤 노래	김화영	1996	현대문학
앙드레 세디드	피리	김화영	1996	현대문학
앙뜨완블롱탱	하느님의 자식들	조항덕	1994	장원
앙리구고	사랑과 지혜의 나무2	김인심	1993	사계절
에르베바쟁	손아귀에 든 독사	정연풍	1993	장원
자크이탈리	영원한 삶	박동혁	1993	다섯수레
크리스티안 바로슈	오르샤가를 기억하는가	김화영	1996	현대문학
플로베르	순박한 마음	김연권	1997	문학과지성사

피에르 키리아	고독의 피에로	김화영	1996	현대문학
저자	도서명	연도		출판사
강영숙	날마다 축제	2004		창비
구인환	어떤 서울 사람	1992		문학사상사
김지수	가깝고 먼 길	1992		월간문학
김춘복	계절풍	1991		한길사
은희경	마이너리그	2001		창비
이승우	식물들의 사생활	2000		문학동네
이오덕 엮음	이사 가던 날	1991		창비
이윤기	그리운 흔적	2000		문학사상사
차현숙	나비, 봄을 만나다	1997		문학동네
한강	그대의 차가운 손	2002		문학과 지성사

- 18) 분석 대상으로 삼은 불한 번역문과 비번역문의 텍스트 목록은 각각 이영훈 외(2010: 186-87), 김혜영(2009: 285)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불한 번역문과 비번역문 모두 장편과 단편이 섞여 있는데, 불한 번역문은 각 단편집에 속한 단편들 중 일부만 코퍼스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각 단편들의 제목이 작품명으로 제시되었고, 비번역문은 단편집에 속한 단편들이 모두 코퍼스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도서명으로 제시되었다.

[Abstract]

**A comparable corpus-based study on formality in  
French-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With a focus on the usage of colloquial style and literary style**

Kim, Hyeyoung · Ko, Ryo Rim · Kim, Ji Eun · Yi, Yeong-Houn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difference of formality between translated texts and non-translated texts. Formality is a typical property of written language in contrast with spoken language. This paper compared formality in translated texts with that in non-translated texts, examining usage of colloquial style and literary style for French-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and Korean literary texts.

French-Korean translated texts reveal a stronger formality than non-translated texts: the frequency of literary style in the former is higher than that in the latter despite the fact that the former have a higher rate of dialogue than the latter in our comparable corpus. An examination of the frequency in use of words that are used differently in colloquial and literary styles reveals that words of literary style are used more frequently in French-Korean translated texts than in non-translated texts. At the syntax level, the ellipsis of postposition and the length of sentence structure were investigated. The frequency of postposition in French-Korean translated texts is higher than that in non-translated texts, the length of sentence is longer in the former than the latter, and the long type of negative expression appears more frequently in the former than the latter.

At both the lexical level and the syntax level, French-Korean translated texts have more properties of literary style than non-translated texts and thus French-Korean translated texts are more formal than non-translated texts.

▶ Key Words: formality, spoken language, written language, colloquial style, literary style, comparable corpus, French-Korean translated text

김혜영(제1저자)

고려대학교 번역과레토릭연구소 연구교수

cojump@empal.com

관심분야: 코퍼스 기반 번역학, 번역 글쓰기

고여림(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

oscar1004@korea.ac.kr

관심분야: 17세기 프랑스 시, 비교문학

김지은(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

irisnation@hanmail.net

관심분야 : 17세기 프랑스시, 프랑스산문

이영훈(교신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erasme@korea.ac.kr

관심분야: 번역평가, 번역수사학

논문투고일: 2010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27일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4일